

‘귀어 스몰엑스포’ 1만명 접속 뜨거운 관심

전남도, 온택트 방식 진행 어촌 영상 방영·귀어 상담 ‘한달 살아보기’ 25명 모집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 전남귀어귀촌 지원센터, 수협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귀어 희망 도시민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3회 전남 귀어 스몰엑스포’에 82만5178명이 조회를 하고, 9779명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인원의 집합이 어려워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전남의 다양한 어촌을 영상으로 접하도록 했으며, 어촌계장과 우수 귀어인 등과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면담하는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스몰엑스포 누리집(insealife.or.kr/expo)을 개설했으며, 여기에 여수, 보성, 영광, 해남, 강진, 완도, 고흥, 함평, 진도 등 9개 시·군 24개 어촌계 현황을 비롯 주민들의 귀어 유치 의지, 특산물 및 빈집 소개 등을 영상으로 담았다. 또 시·군별 귀어귀촌 지원 정책 등도 소개했다. 엑스포 참가자 14명이 우수 귀어인과 귀어귀촌 전문가, 어촌계장 등을 상대로 직접 상담했으며, 1315명이 전남 귀어와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는 이번 엑스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전남 어촌에서 머물며 현장체험 할 수 있는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 프로그램의 참가자 25명

을 모집, 오는 11월 2일부터 진도 신기어촌계, 영광 구수대신 어촌계, 해남 어북어촌계에 보낼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엑스포를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전남 어촌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성공 귀어인들의 영상도 제작했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도시의 귀어 희망 도시민 900여 명에게 초청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모바일, 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펼쳤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장흥에서 제1회, 2019년 목포에서 제2회 귀어 스몰엑스포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매년 150여 명 이상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전남도내 어촌계를 찾아 귀어·귀촌을 준

비한 바 있다. 스몰엑스포를 통해 귀어·귀촌한 도시민들은 현재까지 20여 명이 이른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어촌의 비전을 보고 전국의 많은 도시민들이 귀어·귀촌에 관심을 보여줬다”며 “이들이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전남 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귀어 실적은 358가구, 4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민들이 귀어했다. 지난 2018년에 비해 36가구 38명이 증가해 2017년부터 귀어 가구 수와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여성친화 농정시책 적극 발굴”

여성농업인연합회 임원 간담회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등 호평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3일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여성농업을 위한 다양한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간담회는 김영록 전남도연합회장과 임원들이 함께 했으며,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여성친화형 농정시책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지난 2002년 설립된 한여농 전남도연합회는 후계여성농업인, 후계농업인 부인 등 4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농업의 경영주체로서 지도자 양성교육, 도·농교류 협력사업, 전통문화 계승·보존사업 등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군을 찾아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이불 200채, 코팅장갑 3000켤레 등

1000만원 상당의 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봉사활동도 벌인 바 있다. 김영록 한여농 전남도연합회장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행복바우처,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등 지원 사업이 여성농업인들에게 반응이 좋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농업인 친화정책을 마련해 여성농업인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통식품 제조·가공부터 판매, 농촌체험 등 농업 전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농촌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당당한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도는 문화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을 위한 행복바우처를 최초 10만원에서 지난해 20만원까지 늘리고, 농작업 편의 제공을 위해 2022년까지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4000대를 지원하는 등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림피해 주범 칩덩굴 천연소재 수건 탈바꿈 전남산림연구소 기술 개발

전남산림자연연구소가 산림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칩덩굴로부터 섬유질을 추출·분리해 천연소재 칩덩굴 섬유 수건을 개발했다. 칩덩굴 섬유 수건은 산림청 R&D 연구과제로 기술개발이 추진됐으며, 칩덩굴 수분흡수력 기능이 활용됐다. 특히 칩덩굴의 셀룰로오스 함량은 47%로, 일반 목재(60%) 보다 조금 낮지만 가공이 용이하다. 수건은 열탕처리와 불순물 제거 등 전처리를 거쳐 섬유질을 추출하고, 추출된 섬유질을 실로 만든 후 편직된 것이다. 칩덩굴은 강한 성장력으로 1년에 약 100m 이상 길이로 빠르게 성장한다. 또 종자번식 및 2차 성장으로 강한 번식력을 지니고 있어 제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거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된 칩덩굴도 주로 현장에 방치돼 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3만3000ha의 칩덩굴이 분포돼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칩덩굴 제거 연구(물리·화학적 처리)와 장비개발이 진행됐으며 올해 121억원을 들여 1만2000ha의 칩덩굴 제거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칩덩굴 제거를 위한 시험과 함께 버려진 칩덩굴을 활용한 칩보행매트도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 칩덩굴을 펄릿화해 열효율을 극대화한 결과 목재와 유사한 4600kcal의 열효율을 확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소재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소재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구문제 함께 풀자”...전남도·시군 공동대응 모색 간담회

인구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도·시군 인구정책 간담회

일시 : 2020. 10. 23.(금)14:00 장소 :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 주관 : 전남도



출산율 1위 영광군 사례 공유 귀촌 ‘곡성 100일 살기’ 소개

전남도는 지난 23일 ‘도·시군 인구정책 간담회’를 갖고 인구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지역 18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인구정책을 되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도 및 22개 시·군 인구 및 출산정책 팀장이 참여했으며, 내용은 ▲내년 주요 인구정책 안내 ▲영광·해남의 출산우수정책 및 곡성·강진의 인구정책 우수사례

등 추진사례 공유 ▲민원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센터장의 ‘전남 인구정책 협업 네트워크 제안’이란 주제 발표 등으로 꾸러졌다. 함께 출산율 전국 1위인 영광군과 2위 해남군은 신생아 양육비 최고 3500만원 지원,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보건소 무료 산전검사 등 결혼에서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인구정책 우수사업 추진사례로는 귀촌에 성공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곡성 100일 살기’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 컨설팅, 농촌형 서비스 디자인 개발 등 농업·농촌 전문스타트업을 확산한 사례로, 사업에 참여한 타지역 청년 30명중 43.3%인 13명이 곡성으로 전입

한 결과를 낳았다. 민원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인구조조 변화와 지역불균형 및 지역쇠퇴에 따른 변화로 전남의 인구정책 협업과 정책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업의지를 정례화해 인구문제에 공동대응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지원관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인구문제에 대응한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과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상생방안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포스트 코로나 대비 어업후계인 역량교육

전남도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우수후계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19 이후 저성장시대를 대비해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교육대상자를 소집해 동·서·남부권역별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1차 교육은 지난 19-20일 여수시수산업경영인 교육장에서, 2차 교육은 22-23일 완도군해조류스파랜드에서 각각 우수

후계어업인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3차는 11월 3-4일 목포 소재 전남도수산업경영인센터에서 각각 100여명의 우수후계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최근 소비패턴 등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정보에 대한 교육과 현장교육이 병행된다. 강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 동향과 시장 상황 대응한 역량 강화, 해양수산정책, 불법조업 근절대책, 해양쓰레기 실태와 현실 등 수산업경영인들이 어업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할 맞춤형 교육 내용으로 꾸러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농업박물관, 농경유물 326점 공개 구매

전남도 농업박물관은 오는 12월 특별기획전을 앞두고 다양한 농경 유물 326점을 공개 구매했다. 구매는 공모를 통해 개인과 문화재매매업자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유물매도신청서를 받아 이뤄졌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격과 구매 여부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 주요 구매 소장품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조선시대 전남 담양부합평·무안·광양현 지역민들의 ‘호구단지’를 비롯 일제강점기 ‘자작농경영일지’, 근현대 농업 관련 농사 달력과 배라, 포스터, 사진 등이다.

‘호구단지’는 3년마다 호주가 자신의 가족 상황과 변동 사항 등을 작성해 관청에 제출한 옛 문서로 오늘날 호적신고서와 같은 것이다. 시기는 1744년부터 1894년까지 150년간의 자료로, 당시 지역민의 신분과 사회제도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자작농경영일지’는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의 한 농부가 1935년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매일 날씨와 작업자 성명, 노동의 종류, 금전출납 및 현물수불 등을 기록한 일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p>	<p>공장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토지 : 8503.4㎡(2572.3평) 건물 : 4234.9㎡(1281.1평) 감평가 : 4,290,595,500원 최저가 : 1,922,187,000원(45%) 유찰3회</p> <p>공장 ▶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평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2회</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4225.9㎡(1278.3평) 감평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2,859,822,000원(56%) 유찰2회</p> <p>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605 토지 : 2058.5㎡(622.7평) 건물 : 1592.8㎡(481.8평) 감평가 : 1,730,846,220원 최저가 : 1,211,592,000원(70%) 유찰1회</p> <p style="text-align: center;">"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